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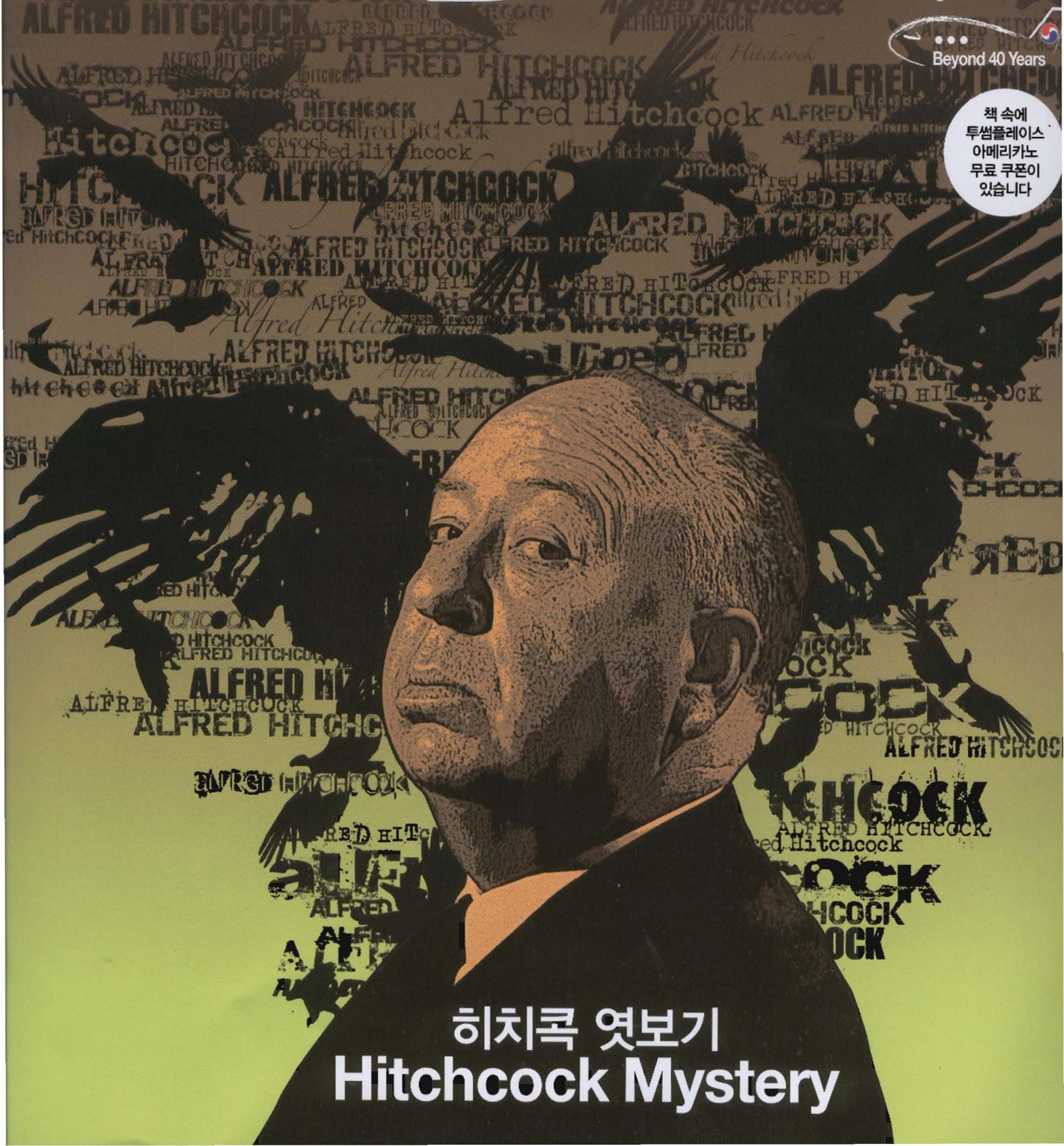
# beyond

The In-flight Entertainment Magazine of **KOREAN AIR**

August 2009 Vol. 3

Beyond 40 Years

책 속에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이  
있습니다



히치콕 옛보기  
**Hitchcock Mystery**

호텔 연재 기획 4 아이레 데 바르데나스, 자연이 머문 곳

# AIRE DE BARDENAS, THE NATURAL PLACE

호텔 아이레 데 바르데나스는 시시각각 모습을 바꾼다. 때론 황량한 사막이, 황금빛 밀밭이, 향기로운 과일나무가 된다. 그 결정권은 온전히 자연이 갖는다. 이곳은 자연이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기 때문이다.

Aire de Bardenas is constantly changing its appearance. Nature is really the star here and it helps decide the mood. The refreshing location is sometimes a semi-desert, a golden wheat field or an aromatic fruit tree.

by 임보림 Lim Bo-rim Photographed by 호세 헤비아 José Hevia, 로만 이난 Román Yñán



스페인 나바라 남부 투델라 중심부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곳, 바르데나스에 한 호텔이 홀연히 들어섰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세계와 마주한다. 북부에서 불어온 싱그럽고 상쾌한 공기가 뜨거운 남부의 대지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는다. 북부의 짙은 녹음은 사라지고 황토색 모래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상어 이빨처럼 뾰족한 북부 언덕들은 저지대 평원으로, 이슬 맺힌 숲은 열기가 피어오르는 포도밭과 올리브 섬으로 변한다. 주변에는 중세시대 고성과 월면을 풍경 삼아 반사막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한쪽으로는 황금빛 밀밭이 바람에 들썩이고 목동이 이끄는 양 떼가 서성인다. '바르데나스의 공기'라는 이름의 '아이레 데 바르데나스'는 이 자연의 한 가운데에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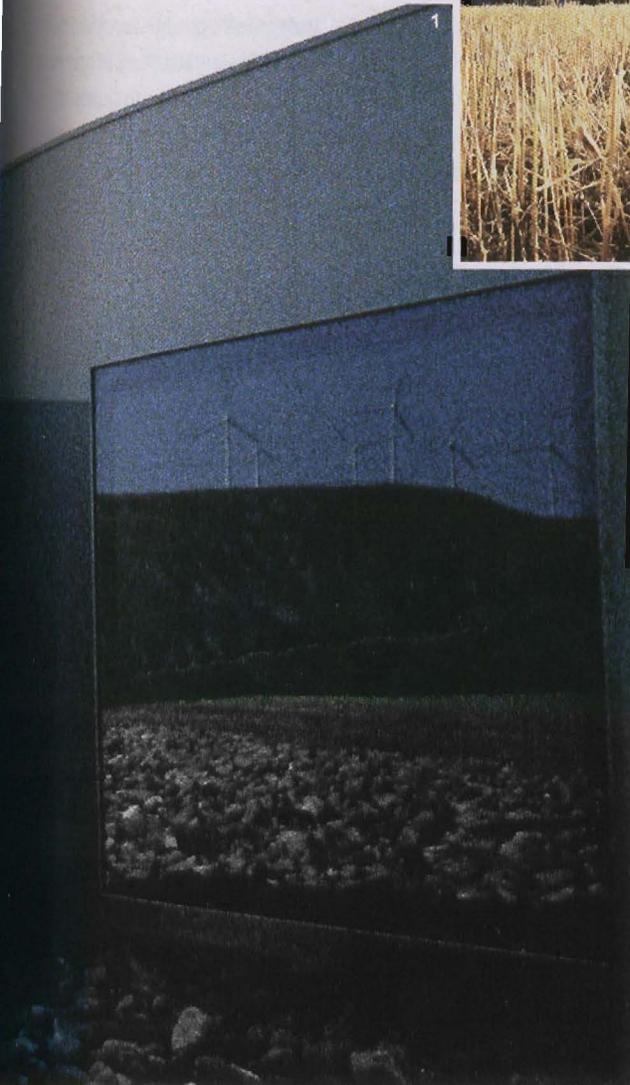
**아이레 데 바르데나스는** 나탈리아 페레즈와 디아나 페레즈 자매의 꿈과 희망으로 지어졌다. 자매는 도시인들이 각박하게 살며 잊었던 '자연'을 찾아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 상쾌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수놓은 별, 자연의 평화와 고요를 온전히 느끼며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장소 말이다.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

**I**n Bardenas, in the southernmost part of Navarra, Spain, a hotel went up quite suddenly. Refreshing air from the north wind breathes cool into the scorching southern land. The green of the north is gone, replaced by earthy yellow sand. The northern hills are replaced by prairies, misty forests by a warm vineyard and olive island. This vast semi-desert is spread against the backdrop of ancient castles from the medieval ages and the moon. On one side, a golden wheat field waves in the wind, and a shepherd guides his flock of sheep. And Aire de Bardenas, literally meaning "the air of Bardenas," stands in the middle of this natural setting.

**Aire de Bardenas was built** on the hopes and dreams of sisters Natalia Pérez and Diana Pérez. They wanted to build a place where urbanites could rediscover nature. It was to be a place of refreshing air, beautiful daybreaks and stars dotting the night sky:



- 1 높이가 낮은 금속 샌드위치 건축 패널을 사용한 건축구조의 '아이레 데 바르데나스'. 외관은 그때그때 자연의 모습에 따라 변한다 2 호텔 앞에 펼쳐진 황금빛 밀밭에서 바라본 호텔 모습 3 객실은 몇 개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다.
- 1 Aire de Bardenas used metal sandwich facade panels, which are low in height. With nature nearby, the hotel appearance constantly changes. 2 The hotel exterior offers a view of a golden wheat field
- 3 The suites are connected by a few platforms.



## BE SURE TO STAY 이것만은 꼭 알아!

### Recommendation

도시가 숨막히고 삶에 열증을 느낀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이 존재한다. If you're suffocated by city life and need a refreshing break from the concrete jungle, then everything you need is here.

🏠 Rooms 10

🍴 Dining Restaurant (two meeting rooms for 45 and 60 people with lunch provided for businesses or events)

Address Carretera de Ejea Km.1,5 31500 Tudela (Navarra, Spain)

Phone +34 948 11 66 66 Website [www.airedebardenas.com](http://www.airedebardenas.com)

호텔 아이레 데 바르데나스는 탄생했다. 이들 자매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호텔을 세우고자 고민했다. 그러던 중 바르셀로나에 작은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젊은 건축가, 모니카 리베라와 에밀리아노 로페즈를 알게 된다. 그들은 자매가 내민 백지에 마법을 걸었다. 당연히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주위 풍경은 빼어났지만 매우 강한 바람과 극한의 기온에 노출되어 있었다. 게다가 180만 유로라는 빠른 예산과 1년의 건축기간(시에서 건축을 허가한 후 12개월 안에 건물이 완성되어야 한다)이라는 제한된 조건까지 있었다. 모니카와 에밀리아노는 첫 단계로 지리적 문제와 빠른 예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식구조를 구상했다. 이를 위해 금속 샌드위치 건축 패널을 사용했다. 높이가 낮은 이 금속 구조물은 해체하여 재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열재로서도 훌륭해 안성맞춤이었다. 호텔은 차차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호텔 한쪽에는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과수원과 채소밭에서 작물을 수확하고 옮기는 데 사용하는 커다란 나무 컨테이너를 쌓아 올렸다. 친환경적인 나무 컨테이너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이동도 편리해 적합했다. 덕분에 멀리서 보면 마치 헛간이나 채소 창고 같은 시골 농장 건물처럼 보였다. 호텔이 풍경 속에 묻히길 원했던 자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 자연이 선사한 혜택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호텔이 위치한 지역이 환경을 위한 연구 대상이 되는 곳이죠. 이곳에 부는 강한 바람 시에르조가 에너지를 절감하게 해주죠. 태양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태양 전지판을 사용해서 물을 데울 수 있고 호텔 전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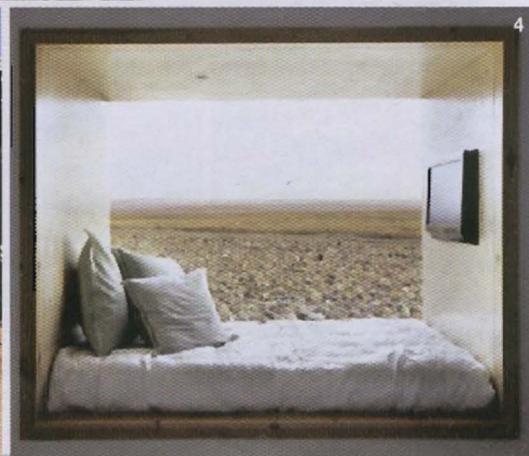
in other words, a place where people could feel the tranquility of nature and recharge their batteries. That's why the hotel Aire de Bardenas was constructed in a wheat field in the middle of a semi-desert landscape. The sisters wanted to construct the hotel without upsetting nature. The project developed as the sisters became acquainted with Mónica Rivera and Emiliano López, young architects with a small studio in Barcelona. They were able to work magic with the sisters' idea. They encountered difficulties from the start, however. The natural backdrop was stunning, but the location was exposed to gusts of wind and extreme temperatures. And it had a tight budget of 1.8 million euros and one year in which to complete the project (it had to be built within 12 months after receiving permission from the city government). The architects first mapped out a plan to help them get around the geographical and financial problems.

For that, they used metal sandwich facade panels. These structures, low in height, can be disassembled and recycled, and also work well for insulation. The hotel slowly took shape. On one side of the hotel, they piled up huge wooden containers – normally used to carry crops and fruits – to help block the strong gusts of wind. The eco-friendly wooden containers were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air flow and were easily movable. It reflected the sisters' wish to incorporate all the benefits



1 직접 기른 채소로 신선한 요리를 제공한다. 뒤로는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 입방체 모양으로 홀트려 놓은 객실 3 과일 나무와 커다란 수반이 있는 객실의 파티오 4 창턱을 깊게 파 마련한 휴식 공간 5 레스토랑 내부 6 객실은 자연광이 한껏 들어와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7 체리나무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호텔 입구

1 The garden where vegetables are grown. Wooden containers block the strong winds 2 The arrangement of the suites 3 Every suite has a patio with fruit trees and large basins 4 With their extra depth, the windows offer a restful spot 5 The restaurant interior 6 The rooms are brightened by sunshine 7 Cherry trees at the hotel entrance



LED 소비도 낮출 수 있어요. 자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환경을 철저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나탈리아의 남편 카를로스의 말이다. 그들은 자연에게 보답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있다.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체리나무를 지나면** 단색 입방체 구조의 호텔 본관으로 들어설 수 있다. 본관은 리셉션과 대강당, 회의실, 바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구성된 공동 공간과 10개의 객실로 구성된다. 포플러 나무와 저수지가 있는 중정은 강한 북서풍 시에르조를 피해 서남부 쪽으로 향해 있다. 정원에서는 과일나무, 아제, 로즈메리나 타임 같은 아로마 나무를 재배한다. 이곳의 채소들은 셰프의 손을 거쳐 레스토랑의 환상적인 요리로 탄생한다. 독립된 별채로 구성된 객실은 무거워 보이는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규칙하게 흩트려 배열해놓았다. 여기에 빛과 그림자까지 어우러져 밤낮으로 생기가 넘친다. 객실들은 각각의 외부 통로를 통해서만 연결되므로 사적인 공간이 완벽하게 보장된다.

확 트인 객실엔 침대, 수납가구, 세면기, 테이블, 테이بل, 안락의자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락의자, 테이블, 침대 등 대부분의 가구들은 건축가들이 이곳만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작품이다. 객실에는 과일나무와 커다란 수반이 놓인 스페인식 테라스 파티오가 딸려 있는데, 언제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객실의 가장 큰 특징은 돌출된 보호창이다. 창턱을 깊게 파고 안쪽에 합판을 덧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창은 주로 북동쪽으로 나 있어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으면서도 주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독서나 TV 시청 등 휴식을 즐기기에 도 더없이 좋다. 객실에 그림이나 사진이 없는 이유도 이 창 때문이다.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는 자연의 모습이야말로 더없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 호텔은 여기저기 구경할 곳이 아주 많아요. 낮과 밤의 빛은 신비롭죠. 저는 중정에 있는 포플러 나무 아래에서 일몰의 공기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환상적이예요. 어떤 손님이라도 오감을 만족시킬 자신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새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바람이 주위를 맴돌죠. 편안한 호텔에서 즐기는 자연. 이게 바로 ‘호화’ 아닐까요? 진정한 호화란 값비싼 게 아니랍니다. 매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죠. 아이레 데 바르데나스는 이런 면에서 절대 다른 호텔에 뒤지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각박한 도심 생활에서 자연을 잊고 살죠. 훗날 이곳이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호텔 아이레 데 바르데나스는 광활한 대지와 싱그러운 공기, 따스한 햇살과 함께 존재한다. 자연으로 돌아가 삶의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곳. 이곳이야말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 아닐까. ■

임보림은 스페인 통신원이다.



7

that nature had given them.

“The place where the hotel is located is a site that has been studied to the last detail,” said Carlos, husband of Natalia, who is in charge of marketing. “Cierzo – the strong wind – helps us save energy. And due to its strong exposure to the sun, we can heat water using solar panels and lower LED use throughout the hotel. Being surrounded by nature, we are completely respectful of the environment.”

**Go past the orderly plantation** of cherry trees, and you reach the monochromatic, cube-shaped main hall. The main building is made up of the common areas, including the reception area, the auditorium, the conference room and the restaurant, plus 10 guest suites. The courtyard, with poplar trees and a reservoir, faces southwest to avoid the northwesterly Cierzo. Fruit trees, vegetables and the aromatic plants rosemary and thyme are planted in the garden. Chefs apply their touch to vegetables to turn them into fine dishes at the restaurant. The suites are arranged to avoid a clustered feel. The blend of light and shadow provides an energetic atmosphere all day, and as they are only accessible through an outside entrance, they guarantee privacy.

Inside the suites, most of the furniture has been custom-designed. With its fruit trees and large basins, the Spanish terrace is another pleasant feature. You can relax in the shade or have fun in the water. The most interesting part about the rooms is the inhabitable window space. With their exaggerated depth and plywood lining, the windows offer a cozy resting spot for guests. The windows face northeast to avoid the direct sun, and still offer a great view. Guests can snuggle up there to read, watch TV, or simply relax.

One reason the rooms don't have paintings or photos on the walls is because the ever-changing natural environment itself is a beautiful piece of art in itself.

“The hotel is full of little corners to discover,” Carlos said. “I love to leave the central courtyard of poplar trees typical of this area of Navarra and breathe the air at sunset in the spring when the sun is moving away. We're confident we can satisfy all the senses of our guests,” he said. “Birds fly overhead, the wind gently touches you, and you enjoy nature in a comfortable hotel.” ■

Lim Bo-rim is a Spanish correspondent.



6